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한은 총액대출한도 1.6조 원 축소
- 태국, 외환시장 통제 조치의 영향

경영 노트

-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는 코닥

사회 트렌드

- 교통사고, OECD 국가 중 최악
- 구글 스토킹(Google-stalking)

저널 브리프

- 물류허브 왕국을 꿈꾸는 싱가포르

洗心錄

- 지혜로운 사람의 열 가지 특성

□ 한은 총액대출한도 1.6조 원 축소

-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은 인상한 데 이어, 2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07년 1/4분기 중 총액대출한도를 2006년 4/4분기 중의 9.6조 원보다 1.6조 원 줄어든 8.0조 원으로 결정함
 -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란 시중은행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을 위해, 1994년부터 도입된 저금리로 대출하는 정책 금융임
 - 한은은 총액대출한도 재배정시 시중은행들의 대출 대상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 또는 증가시키는 통제 수단을 가짐
 - 이번의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기준율 인상 등과 같이 시중 유동성 축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평가됨
- 최근에 들어 가계 부채 문제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출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내수 경기 부진, 환율 하락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대출 한도 축소로 자칫 중소기업발 신용 경색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 태국 외환시장 통제 조치의 영향

- 태국은 지난 18일 신규 해외 유입 자금(2만 달러) 초과분의 30%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는 외환규제 조치를 단행하였음
 - 동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 등에 의해 태국 바트화가 연초 대비 14.8% 상승하여 올 들어 아시아 통화 가운데 최고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동 조치로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도가 급증하면서 태국의 주가지수가 19일에만 14.8% 급락하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였음
- 태국 정부가 주식투자부분에는 동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수정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아시아 통화 전반에 대한 투기적 거래와 자본 유출입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는 코닥*

- (개요) 2004년부터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석권한 코닥이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선언하면서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음
 - 기술지향 제품 혁신을 통해 소니·캐논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지만 한계성을 인식,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추진하게 됨

- (한계성) 강력한 경쟁사와 수익성의 한계, 시장예측 실패로 디지털 카메라의 제품 혁신만으로는 기업의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강력한 경쟁사) 아그파 등 필름산업의 경쟁사들과 달리 소니와 같은 기업들은 코닥보다 마케팅과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
 - (수익성의 한계)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과잉 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아 코닥은 2006년 3분기까지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함
 - (시장예측 실패) 대중화 진행 속도의 예측 실패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저수익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혁신 내용) 필름과 디지털 카메라 기업에서 종합 이미지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기업문화 변경 및 신사업을 추진 중임
 - (벤치마킹) 애플은 아이팟(iPod)과 음악 온라인 다운로드 스토어 아이튠스(iTunes)를 통해 컴퓨터 기업에서 소비자 디자이너 기업으로 진화함
 - (기업문화 변경) 반항자(Rebels)를 의미하는 ‘R 위원회’를 변화 저항세력으로 구성하여 회사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
 - (신사업 추진) 디지털 사진 서비스에 주력하면서 온라인 디지털사진 관리시스템, 고속 스캐닝 서비스를 개발 중임

- (시사점) 시장 및 경쟁상황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라도 Zero-Base에서 혁신을 추구해야한다는 자세가 필요함
 -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과 필름의 소멸과 같은 대체관계는 코닥과 같은 대기업의 생존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임

* 이 글은 BusinessWeek(2006.11.27)에 게재된 “Mistakes Made on The Road To Innovation”을 요약·재구성한 것임

□ 교통사고, OECD 국가 중 최악

-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OECD국가 평균보다 80% 더 많은 119.3건으로 OECD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일본(117.2건)을 제치고 비교 대상 28개 국(멕시코 및 호주 제외) 중 최다를 기록함
 -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OECD 평균보다 60% 더 많은 459.1건으로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에 이어 28개국 중 6번째로 많으며,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OECD 평균보다 40% 더 많은 13.7명으로 비교 대상 29개국 중 4위로 나타남
- 어린이 교통사고는 OECD국 중 1위를 기록함
 - 2003년 말 기준으로 우리 어린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4.1명으로, 미국 3.5명, 일본 1.3명, 영국 1.3명 등 OECD 회원국 평균 사망자 2.5명을 크게 웃돌고 있음
 -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점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학버스나 주위 차량이 점멸등 색깔에 따른 의무 위반시 범칙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주어지고 있음

□ 구글 스토킹 (Google-stalking)

- 인터넷이 새로운 형태의 중독 증세를 만들고 있음
 - 영국의 과학 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의 ‘인터넷 중독 신조어’에 의하면, ‘구글 스토킹(google-stalking)’이란 온라인상에서 옛 친구나 동료, 첫사랑의 현재 모습을 엿보는 중독 증세를 말함
 - ‘에고 서핑(ego-surfing)’은 자신의 평판을 인터넷에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블로그 스트리킹(blog streaking)’은 자신의 정보나 비밀을 온라인에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함
 - ‘포토리킹(photolurking)’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뒤적거리는 것을 가리킴
 - 이밖에 미국의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키피디홀리즘(wikipediholism)’ 등이 있음

□ 물류허브 왕국을 꿈꾸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 항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환적 화물 유치 집중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2005년 홍콩을 누르고 세계 1위 컨테이너 항구로 7년 만에 복귀함
- (환적 화물 집중 전략)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하고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통해 환적 화물 집중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환적항(transshipment port)으로 거듭남
 - (우수한 입지 조건 활용) 싱가포르 정부는 미주와 구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항의 입지를 활용하여 수출입 화물이 집결될 수 있는 컨테이너 환적항으로 개발함
 - (정부의 집중 투자) 물류 기반 시설의 IT화 추진 및 대규모 항만 규모 확장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로 세계 최고의 물류 경쟁력을 회복함
 - (물류 기반 시설의 IT화) 최신 항만인 파시판장 터미널에서는 본부 컨트롤타워에서 6대의 브리지 크레인(bridge crain)의 조작이 가능하며, IT카드 리더기 도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컨테이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IT융합 물류 기반 시설 투자를 강화함
 - (대규모 항만 시설 투자) 싱가포르항만공사는 2018년까지 31개의 버스(berth, 컨테이너선 1척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를 추가 조성해 5,000만 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하나를 가리키는 단위, 2005년 현재 2,062 TEU) 시대를 연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임
 - (세계 최대 물류 허브 재구축) 그 결과, 싱가포르 항은 세계 컨테이너 환적 물량의 1/5을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의 물류 허브를 재구축함
- (시사점) 세계 물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내 환경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과감한 투자와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12.25)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지혜로운 사람들의 열 가지 특성

현자(賢者)의 특성은 무엇일까? 할 어반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든다.(할 어반, <인생을 바꿔줄 선택>)

첫째, 현자는 평생 배움을 추구한다. 그들은 분명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우면 배울수록, 배울 것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아 있는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자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식견을 기꺼이 나누어줄 만큼 아주 친절하다. 다른 사람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가 된다.

셋째, 현자는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 가족과 친구, 일과 창의성, 휴식과 기분전환, 독서와 학습, 타인에 대한 봉사, 운동과 음식 등 여러 차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현자는 정직하다. 그들은 정직이 주는 선물을 알고 있다. 마음의 평화, 탄탄한 명성, 좋은 성품, 신뢰에 기초한 관계 등

다섯째, 현자는 공경할 줄 안다. 그들은 삶은 존중한다. 삶 자체가 커다란 선물인 듯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긴다. 세상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여섯째, 현자는 훌륭한 태도를 선택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방법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일곱째, 현자는 목적을 찾는다. 그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안다. 목표를 찾고 그것을 달성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여덟째, 현자들은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훌륭한 것이다.

아홉째, 현자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겸손, 인내, 배려, 용서 등의 미덕을 생활화한다.

열째, 현자는 상식대로 행동한다. 상식은 논리, 분별, 이성, 합리, 실용성, 현실성, 명백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지혜’까지 통하고 있다. 상식을 지키기란 쉬운 게 아니며, 상식을 지키는 게 곧 지혜다.

**성공을 뺏내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실패에 함구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 케네 (1644~1774) : 프랑스 경제학자